



발명의 발상기법

브레인 스토오밍 (1)

비판엄금

제출된 하나의 문제에 관하여 모두가 각자 생각나는대로 아이디어를 내지만, 그 중에는 시시한 案도 있고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디어도 나오며 유치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학교 교육이나 경험에서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과 같은 틀이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사고로 머리가 굳어져 있다.

특히 이과계나 수학과계의 사람은 부정조건을 지나치게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제시되어도 해답은 판에 박은 듯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석유공로가 넘어져서 불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고 물으면, 이과계의 사람이면, 「물을 끼얹으면 퍼지니까 모래를 뿌려라, 이불을 덮어씌워라...」 이렇게 판에 박힌 관념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모르

는 문과계의 사람이나 유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물을 끼얹어라」고 하는 案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석유는 가볍다. 따라서 물 위에 퍼져서 오히려 불이 크게 번지게 돼. 과학책을 읽어야겠군」 하고 비판했다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여러가지 해결안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려해도 「만약 틀려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억제반응이 일어나서 다음부터의 案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비판이 허용되면 개중에 박식한 사람이 있어서 득의 양양하게 비판을 하여 자기 현시를 한다. 그러면 비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실증이 난다. 이리하여 인간관계가 이상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비판엄금이라는 규칙이 엄격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자유분방한 분위기 보장

이것은 보통의 사고법이 아닌 비약적인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의지를 나타

발명의 기법중에는 브레인 스토오밍이란 것도 있다.

브레인 스토오밍이란 1941년 미국의 알렉스 오즈보온이 案出한 소년단 발상법은 너무도 유명하다.

이 방법은 지금도 제안제도나 품질관리 분임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브레인 스토오밍에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 즉 ▲비판엄금 ▲자유 분방한 분위기 보장 ▲질보다도 량을 요구한다 ▲결합개선(남의 아이디어에의 편승) 등이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고 개발법에 관한 근본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후 많은 새 사고법이 유행했지만 모두가 이 흐름에서 진화 발전한 것이다.

번 것이다.

그리고 첫번째의 규칙인 비판엄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기발한 案, 의외성이 있는 착상을 누구에게나 스스럼없이 자유 분방하게 제출하라. 그것은 뇌를 강하게 자극한다.

따라서 모두의 머리에 영감의 불을 붙이게 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호기심이 있다. 스틸을 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스틸을 찾는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기발함이나 의외성이나 모순을 지닌 것은 사람의 흥미를 크게 불러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발언을 청해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히로시마를 폐허로 만든 저 유명한 원자폭탄! 그것을 압축할대로 압축하면 성냥과 정도의 것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도 솟아나온다.

이와 같은 발상이 나올 만한 머리가 되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質보다도

량을 요구한다

「아이디어는 量이다. 量에 비례해서 좋은 案이 나온다」 이 점을 오즈본은 노렸던 것이다.

지금부터 46년전 이 규칙을

널리 퍼뜨리려고 한 그는 과연 대단한 사람이었다.

「홈런은 휘두른 방망이의 수에 비례한다」고 홈런왕은 말했다. 그것도 똑같은 생각이다.

「나쁜 案도 안나오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좋은 案이 나오겠는가. 먼저 나쁜 案이라도 좋으니 50개든 100개든 내어보라. 그때부터 시작된다」 하고 眞珠王인 미끼모또도 말했다. 생각은 모두 똑같은 것이다.

아이디어로 좋은 것을 내 보자고 잔뜩 도사리면 도리어 나오지 않는다.

제안 수가 적다고 투덜대고 있는 회사일수록 인력 20% 절감안을 내라느니, 능률 10% 향상안을 내라는 등으로 質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 사원의 두뇌에는 강한 억제작용이 일어나 量이 나오지 않는다.

량이 적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質이 좋은 案의 수가 적은 것이다. 이것은 이미 대뇌 생리학자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바이다. 발명왕 에디슨은 단 하나의 案을 얻기 위해 10권의 대학노트를 새까맣게 만들었다고 한다.

량을 많이 내고 있는 동안에 비약적인 좋은 것이 태어난다.

그러나 학식 있는 경험자 중에는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質이 좋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규칙에 반대하는 사람로 있다.

그러나 그것은 브레인 스토 오밍을 실제로 해본 일이 없는 학자로서 일반적인 견해이자 탁상공론이라 할 수 있다.

결합개선(남의 아이디어에의 편승 환영)

이것은 남이 여러가지 案을 냈지만 그것을 받아서 좋은 점을 결합시켜 자기 案으로 발명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아이디어에의 무임승차 환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발명 아이디어 활동에서 중요한 종합연습으로서 어느 정도의 높은 차원의 분할 결합으로의 단계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뇌세포 속에서 취사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해 생각한다고 하는 협력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本 會 新 刊 案 內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록 :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

가 격 : 3,0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